

##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박 형 우\*\*

- I. 머리말
- II. 알렌의 성장 과정과 선교사 지원
  1. 알렌 집안
  2. 델라웨어 장로교회
  3.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4. 의과대학 진학
  5. 선교사 지원과 임명 과정
- III. 미국 북장로회의 중국 선교 상황
  1. 중국 선교부의 확장
  2. 의료 선교사의 부족
- IV. 알렌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내한 과정
  1. 태평양 횡단 여행
  2. 알렌의 난징 체류
  3. 헌터의 한국행 지원
  4. 알렌의 상하이 체류
  5. 한국행 지원과 허락
- V. 맺음말

### I. 머리말

2014년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이 내한한 지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알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파송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내한 과정은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기까지의 과정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적되는 과정으로

\*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연구비(6-2012-0151)에 의해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동은의학박물관 관장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동안 알렌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된 자료는 알렌이 저술한 *Things Korean*과 그의 일기이다.<sup>1)</sup> 이 두 자료는 알렌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자신의 선교사 지원이나 임명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알렌에 관해 가장 먼저 주목했던 연구는 백낙준(白樂俊, 1895-1985)의 『한국개신교사 1832-1910』(1927년)이다. 이것은 1910년까지 한국의 개신교 도입사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교과서’적으로 인용되는 역할이다.<sup>2)</sup> 하지만 하스(Joseph Hass, ?-1896)에게 보낸 편지 이외에는 알렌과 관련된 인용 문헌이 거의 대부분 2차 사료이고, 특히 내한 이전의 알렌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sup>3)</sup> 이후 1943년 해링턴(Fred H. Harrington, 1912-1995)의 저술에서는 뉴욕 공립도서관의 알렌 문서를 다수 인용해서 알렌의 집안,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등 알렌의 선교사 지원 배경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sup>4)</sup>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내한 이전의 알렌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선교사 로즈(Harry A. Rhodes, 1875-1965)가 1934년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저술한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도 1차 사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sup>5)</sup> 이후 발표된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를 재

1)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H. N. 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서울: 박영사, 1979). 알렌의 일기는 김원모에 의해 번역되었다. H. N. 알렌 저,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2)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백낙준 전집 1)(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이 책은 자신의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을 번역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3) Horace N. Allen, Letter to Joseph Haas(June 6th, 1884). New York Public Library, Box 2, Outgoing 1884-5, #3.

4) Fred 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44). 해링턴 저, 이광린 역, 『개화기의 한미관계: 알렌 박사의 활동을 중심으로』(서울: 일조각, 1973).

5)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34). 이 책은 최재건에 의해 번역되었다. 최재건,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사: 1884~1934』(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인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6)</sup> 최근 알렌이 선교부로 보낸 편지가 책으로 출판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알렌이 내한한 이후의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sup>7)</sup>

한편 최근 알렌의 한국 도착 일시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sup>8)</sup> 여기에서는 ‘알렌이 1884년 9월 14일 상하이를 떠났다’는 백나준 이래의 통설의 오류가 지적되었다. 이것은 알렌과 관련된 초기 역사에 관해 얼마나 불확실한 점이 많은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 북장로회의 해외 선교 관련 1차 사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교의 추진 과정을 밝힌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9)</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최근 필자가 발굴한 알렌 관련 1차 사료의 검토를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만 언급되었던 알렌의 선교사 지원 과정과 내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알렌의 성장과정과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미국 북장로회의 중국 선교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알렌이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6)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 외교』(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서울: 두레시대, 1998); W. J. Kang, “The Legacy of Horace Newton Alle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July 1996), 125-128.

7) 알렌, 김인수 옮김,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 편지(1884-1905)』(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8) 탁지일, “알렌의 조선도착 기록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집(2013년 3월), 145-162.

9) 이선호·박형우, “19세기말 미국 북 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제157집(2012년 3월), 277-323.

## II. 알렌의 성장 과정과 선교사 지원

### 1. 알렌 집안

알렌은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 주의 델라웨어(Delaware)에서 부친 호러스(Horace Allen, 1804-93)와 어머니 제인(Jane Montgomery Riley, 1817-91) 사이의 5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대학 교육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알렌 집안은 버몬트 주의 명문 집안이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허버 시니어(Herber Allen, Sr., 1743-82)는 소령의 계급으로 미국 독립운동에 참가했으며, 1777년의 영국군 버고인 장군(John Burgoyne, 1722-92) 침공에 대항한 공로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sup>10)</sup> 허버의 형 이튼(Ethan Allen, 1738-89)도 남북전쟁의 영웅으로, 영국으로부터 뉴욕 주 동북쪽의 포트 타이콘더로가(Fort Ticonderoga)를 빼앗는 큰 공을 세웠다.<sup>11)</sup> 알렌의 부친은 버몬트 주에서 오하이오 주로 이주한 후 결혼했으며, 농장을 경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부농이었다.<sup>12)</sup>

이와 같이 미국 독립에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알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1870년 미국 총인구 조사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sup>13)</sup> 알렌은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고

10) U. S., So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Membership Applications, 1889~1970(Horace N. Allen, Apr., 23rd, 1910).

11) C. W. Webber, *Historical and Revolutionary Incidents of the Early Settlers of the United States, with Biographical Sketches of the Lives of Allen, Boone, Kenton, and other Celebrated Pioneer* (Philadelphia: Duane Rulison, Quaker City Publishing House, 1861).

12) 알렌이 태어난 직후인 1860년 시행된 총인구 조사에 의하면 부친의 부동산은 2만 달러, 동산은 1천 달러였으며, 1870년에는 부동산이 9만 달러였다. 186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July 23rd, 1860, Horace Allen); 187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July 5th, 1870, Horace Allen).

13) 187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학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 2. 델라웨어 장로교회

알렌은 12~14살 사이(1870년 경), 집 근처의 델라웨어 (제일)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sup>14)</sup> 이 교회는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이주해 온 휴즈(Joseph Hughs)에 의해 1810년 설립된, 전통 있는 교회였다.<sup>15)</sup> 이 교회는 알렌이 후에 의료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피츠버그의 웨스턴신학원을 졸업하고 1861년부터 이 교회의 대리 목사로 시무했던 머티어(Calvin W. Mateer, 1836-1908)가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중국의 산둥(山東)선교부에서 활동하며 산둥대학교를 설립했으며, 교파간위원회(Interdenominational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성경을 베이징 관화(官話)로 번역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up>16)</sup> 그는 1879년 6월부터 1880년 11월까지 첫 안식년을 가졌는데, 이때 자신이 유일하게 시무했던 델라웨어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렌은 1882~3년에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 자신의 임지를 중국의 산둥선교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산둥선교부의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93)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교회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알렌이 중국 선교부의 사정은 물론 같은 산둥선교부의 머티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7)</sup> 델라웨어 장로교회에서는 머티어에 이어 1871년 캡(Margaret Brown Capp)이 중국으로, 1872년 프랫(Mary E. Pratt)이 인도로 파송되었다.

14) Personal Record of Horace Newton Allen(May 16, 1928). PHS RG 360.

15) W. Roy Diem, *The Presbyterian Church of Delaware, Ohio 1819-1960* (Delaware, Ohio: Independent Print Shop, 1960), 7-9.

16) Daniel W. Fisher, *Calvin Wilson Mateer. A Bi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1).

17) Horace N. Allen(Cincinnati), Letter to John G. Lowrie(Sept. 26th, 1882). PHS RG 31 36-14, #5.; Horace N. Allen (Cincinnati), Letter to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 U. S. A.(Mar. 1st, 1883). PHS RG 31 37-6, #500.

다음으로 알렌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혼(Abram D. Hawn, 1832-1912)이었다. 그는 알렌이 대학에 들어간 후인 1878년 9월부터 24년 동안 델라웨어 장로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알렌이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알렌을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소개한 것이 바로 혼이다.<sup>18)</sup> 혼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 웨슬리안대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 지도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교화시켰다. 혼의 이런 영향을 받아 델라웨어 장로교회를 다닌 젊은이 중에서 다수가 목회자가 되었으며, 알렌에 이어 1892년 스노드그래스(Mary A. Snodgrass), 1895년 웰스(Margaret Greer Wells) 그리고 마치(Arthur W. March)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활동하였다.<sup>19)</sup>

### 3.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알렌은 자신이 진학하려는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Ohio Wesleyan University)의 요강(要綱)에 따라 자신의 품행이 단정하다는 추천서를 제출하고, 보편적인 영어 과목과 예비 과정에 규정된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이 대학은 1844년 9월 오하이오 주에서 최초로 설립된 감리회 계열의 학교였다. 그러면 왜 장로교회에 다니던 알렌이 감리회 계열의 학교에 입학했을까? 이에 대한 알렌의 대답은 단순하다. “내가 사는 마을에 감리회 대학밖에 없어 그 학교에 다녔다.”<sup>20)</sup>

1877년 9월 입학 당시 알렌은 학부과(Collegiate Department)의 비정규 과정(irregular)으로 등록하였다. 알렌은 자신이 대학과 의과대학을 다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건조물 상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틈틈이 근처 의사로부터 의학을 배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비정규’란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른 일을 병행

18) Abram D. Hawn(Delaware, Ohio), Letter to John G. Lowrie(June 27th, 1882). PHS RG 31 36-12, #288-9.

19) W. Roy Diem, 34-6.

20) Horace N. Allen(Cincinnati), Letter to John G. Lowrie(Sept. 26th, 1882). PHS RG 31 36-14, #5.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추정된다.<sup>21)</sup> 알렌은 3학년 때부터 학부과의 정규 과학 전공(Scientific)으로 편입되었으며, 4학년이 되면서 활발한 학생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학교에서의 생활 중에 알렌이 후에 의료 선교사가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일이다. 알렌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대학에 입학한 직후였다.<sup>22)</sup> 이즈음 알렌은 자신이 활동하던 델라웨어 장로교회의 청년회(Young People's Society)에서 주최한 「의료 선교」란 제목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강연에 감명을 받은 알렌은 자신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문제를 두고 심도 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자신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둘째, 대학교의 교풍이다. 이 학교는 감리회 계열의 학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 분위기를 학생들과의 관계, 모든 규칙 등에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배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감리교회만 강조하는 교과주의적인 학교는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학생을 입학시켜 ‘가장 자유스러운 원칙하에’ 운영되는 대학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던 알렌도 스스럼없이 입학할 수 있었고, 장로교회의 혼 목사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는데 적극 참여했다.

셋째, 알렌의 다양한 학생 활동이다. 교회에서의 활동과 별도로 알렌은 과학 전공으로 정해지면서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당시 대학교에는 정규 수업과 별도로 문학적, 법적, 사회적 및 신체적 측면의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부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4개의 모임이 있었는데, 알렌은 크리스토퍼머티언 소사이어티(Chrestomathean Society)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중 강연에 참여했다.<sup>23)</sup> 알렌은 활

21) 1880년 미국 총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알렌의 직업은 가게 점원으로 되어 있다. 188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June 16th, 1880, Horace Allen); Personal Record of Horace Newton Allen(May 16, 1928). PHS RG 360.

22) Personal Record of Horace Newton Allen(May 16, 1928). PHS RG 360.

23) 당시 미국 대학 교육의 특징적인 조직은 문학반이었다. 대부분의 문학반에서는 수시로 주제를 정해 토론을 벌였으며, 수필, 시 음악 등에 관한 활

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 선교에 대해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4학년이 되던 1880년 10월에는 교내 소식지인 *The College Transcript*의 편집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다.<sup>24)</sup> 알렌이 졸업을 앞둔 1881년 3월 19일자 소식지에는 “의료 선교사”라는 필자 미상의 글이 실려 있는데, 편집인 중에 의사가 된 사람은 알렌밖에 없어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직무(ministry)를 시작하실 때, 먼저 병든 육신을 치료함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의료 선교사의 사역은 주님의 이러한 행위(work)와 상당히 유사하다.

넷째, 찰스 리(Charles Lee, 1857-?)를 친구로 둔 일이다. 알렌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성장한 죽마고우인 그는 알렌보다 2년 먼저인 1879년 고전과(Classical Department)를 졸업했다. 알렌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자, 리는 목회 선교사가 되어 함께 선교 사역에 나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리는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린스턴 신학원에 진학했고, 졸업을 앞둔 1882년 3월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 중국 선교사로 지원했다.<sup>26)</sup> 하지만 갖 결혼한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것을 포기하고 펜실베이니아 주 카본데일(Carbondale)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시무했다. 리 이외에 동기생으로 *The College Transcript*의 편집을 함께 했던 스콰이어(Lee W.

---

동도 중요시했다. 당시 문학반은 대학생들 훌륭한 사회인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장(場)을 마련해 준 셈이다. 알렌이 활동했던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의 크리스토퍼티언 소사이어티도 이러한 문학반 중의 하나였으며, 1846년 조직되었다. *The College Transcript* 14(8)(Jan. 22, 1881), 1; 14(12)(Mar. 19, 1881), 1.

24) *The College Transcript* 14(1)(Oct. 2, 1880), 1.

25) 원문을 소장하고 있는 웨슬리안 대학교의 문서보관소(Delaware)나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북장로회의 장로회역사관(필라델피아)에서도 이 자료가 알렌이 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The Medical Missionary,” *The College Transcript* 14(12)(Mar. 19, 1881), 180.

26) Charles Lee(Princeton), Letter to the Secretaries of the Presb. Board of Foreign Missions(Mar. 10, 1882). PHS RG 31 36-10, #39.



Squier) 목사도 1881년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사로 일본의 하코다테로 파송된 바 있었다.<sup>27)</sup>

마지막으로 평생 반려자가 된 프랜시스 메신저(Frances Ann Messenger, 1859-1948)와의 만남이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에게 반려자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 알렌은 여성과(Ladies' Department)를 다니는 동기생 프랜시스와 사귀었는데, 그녀도 알렌을 만나기 전 선교사로 파송되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

프랜시스의 집안은 원래 영국 링컨셔 출신인데, 7대 할아버지인 에드워드(1617-88)가 미국 코네티컷에 정착했다. 프랜시스의 증조할아버지 빌(Bille Messenger, 1757-1837)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1875년부터 77년까지 하사관의 계급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한 독립유공자였다.<sup>28)</sup> 빌이 오하이오 주에서 사망하면서 그의 후손이 오하이오 주에 근거를 갖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1859년 1월 18일 오하이오 주 콜린스(Collins)에서 아버지 빌(Bille Norman Messenger, 1808-89)과 어머니 엘리자(Eliza Hamer, 1830-62) 사이의 딸로 태어났다.<sup>29)</sup>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으며,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더구나 어머니가 1861년 동생 클레런스(Clarence J. Messenger, 1861-1947)를 낳은 이듬해인 1862년 사망했기 때문에 어린 프랜시스는 타운젠드(Townsend)에 살고 있는 외가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다. 대학교 재학 시 메신저는 애서니엄 소사이어티(Athenaeum Society)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때로 강연을 했는데, 졸업 전에 했던 “우리 대학의 과정”이란 제목의 강연은 그 해 최고의 강연으로 인정받았다.<sup>30)</sup>

메신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며 졸업 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한 점에서는 알렌과 상당히 유사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은 알렌과 달랐다. 프랜시스는 교양을 쌓으며 조용한 학창 생활을 보냈고,

27) Fred H. Harrington, 5.

28) U. S., So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Membership Applications, 1889-1970(Jason Rugg Austin, May 17th, 1919).

29) 186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30) Locals, *The College Transcript* 14(17)(June 18th, 1881), 265.

이것은 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외교관의 부인이 되어서도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행보를 보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알렌은 1881년 6월 30일 다른 4명과 함께 과학 전공으로 졸업하여 이학사의 학위를, 메신저는 다른 9명의 여학생과 함께 문학사의 학위를 받았다.<sup>31)</sup> 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이 자유로운 주제를 정해 강연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알렌은 “시간의 가치”, 메신저는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 1709-84)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 4. 의과대학 진학

알렌은 자신이 살던 델라웨어에 인접한 도시인 콜럼버스에 있는 스타링 의과대학(Starling Medical School)에 입학하였다. 알렌의 첫 해 의학 수업은 1881년 9월 1일 시작하여 2월 16일 학년말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끝났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배운 것은 해부학, 생리학, 화학, 약물학 및 해부 실습이었다.<sup>32)</sup>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 의과대학 졸업생 혹은 면허장 소지자로부터 3년 동안 사사 받아야 했기에 알렌은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델라웨어의 맥도웰(John O. McDowell, 1849-90)과 보그트(J. W. N. Vogt, 1852-1908)로부터 교육을 받았다.<sup>33)</sup> 둘 중에서 알렌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맥도웰이었다. 그는 1874년 웨슬리안 대학교를, 이어 1876년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알렌의 직속 선배였다. 그는 1876년부터 1년 동안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레지던트 의사로 근무한 뒤 1877년부터 델라웨어에서 개업을 시작했다. 이후 동교와 깊은 연관을 맺어 동창회의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31) Thirty-Sixth Annual Commencement. Ohio Wesleyan University, Delaware, Ohio, Thursday, June 30th, 1881. PHS RG 360.

32) 35th Announcement of Starling Medical College, together with Catalogue and Order of College and Hospital Exercises, for the Session of 1880-81, Columbus, Ohio, 1881.

33) *The College Transcript* 15(14)(Apr. 29, 1882), 222.

1882년부터 웨슬리안 대학교의 이사로 활동했다.

스탈링 의과대학에서 1년 과정을 끝내고 맥도웰로부터 사사 받고 있던 알렌은 ‘보다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 맥도웰이 졸업한 마이애미 의과대학으로 학교를 옮겼다. 당시 미국의 의과대학은 대체로 의과대학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해야 했는데, 다른 학교를 다닌 경우 마지막 해에 다닌 의과대학 명의의 면허를 받았다. 물론 첫 해에 다녔던 학교가 충실한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졸업장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아직 학년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알렌은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20주 동안의 겨울 학기에 정규 강의 및 실습을 받았다.<sup>34)</sup>

알렌이 받은 강의는 화학, 독성학, 약물학, 치료학, 해부학, 내과학, 외과학, 비뇨생식기 및 성병학, 안과, 산과학, 부인과학, 여성 및 소아 질환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오전 8시 45분부터 10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의 임상 강의 시간에는 임상 내과, 임상 외과, 여성 및 소아 질환, 눈과 귀, 병리 해부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오후 3-4시 사이의 외래 및 검사실 실습에는 요일에 따라 내과, 외과, 여성 질환, 성병, 소아 질환 등에 관한 실습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규 수업에 덧붙여 봄 학기가 개설되었는데, 정규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해부 실습실이 개방되었고 시신을 이용한 수술 외과의 시범이 있었다. 또한 개인 교습의 기회도 제공했다. 이상의 교과 과정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상당히 짜임새 있고, 강의와 실습 기회를 모두 제공하는 훌륭한 것이었다. 알렌은 이와 같이 충실한 의학 교육을 받고 1883년 3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 5. 선교사 지원과 임명 과정

알렌의 이름이 처음으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 알려진 것

34) Announcement of the Twenty-Second Annual Course of Instruction at the Miami Medical College of Cincinnati, with a List of Matriculants and Graduates of 1881. Wilstach, Baldwin & Co., Stationers, Cincinnati, 1881.

은 스타링 의과대학에서 1년의 과정을 끝내고 델라웨어의 맥도웰로부터 사사 받고 있을 때였다. 혼 목사는 1882년 5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복장로회 연례 총회에 참석했을 때, 해외선교본부의 총무 로우리(John C. Lowrie, 1808-1900)와 만나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한 젊은이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그 젊은이에게 지침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35)</sup> 하지만 지침서를 받지 못하자 혼은 다시 편지를 보내 자신이 “해외 선교사 사역에 있어 모든 면에서 적합하며 가장 훌륭한 젊은이로 여기는” 알렌이 의료 선교사로 임명 받고 싶어 하니 그에게 지침서를 보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sup>36)</sup>

이후 진행된 알렌의 선교사 지원과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선교본부로부터 받은 지침서에 따라 알렌이 복장로회로 처음 편지를 보낸 것은 1882년 9월 26일이었다.<sup>37)</sup> 이 편지에서 알렌은 자신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업하겠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려 할 뿐입니다”라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과 수련과 다소의 개업 경험을 가져야 하기에 1883년 가을에 파송되기를 희망했고, 특별히 선호하는 선교지는 없지만 중국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구인 찰스 리와 함께 파송해줄 것을 희망했다.

졸업을 얼마 앞둔 1883년 1월부터 혼 목사 및 모리(A. B. Morey) 목사(신시내티 제5장로교회)의 추천서와 마이애미 의과대학 테일러(William H. Taylor) 교수의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해외선교본부로 보내졌다.<sup>38)</sup> 최종 시험을 마친 알렌은 3월 1일 정식 선교사 지원 편지를

35) Abram D. Hawn(Delaware, Ohio), Letter to John G. Lowrie(June 27th, 1882). PHS RG 31 36-12, #288~9.

36) Abram D. Hawn(Delaware, Ohio), Letter to John G. Lowrie(June 27th, 1882). PHS RG 31 36-12, #288~9.

37) Horace N. Allen(Cincinnati), Letter to John G. Lowrie(Sept. 26th, 1882). PHS RG 31 36-14, #5.

38) Abram D. Hawn(Delaware, Ohio), Letter to the Board Foreign Missions,

보냈는데, 알렌의 선교사 지원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제가 선교사 임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봉사이며, 저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사역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전 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으며, 대학을 다니며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갓 졸업했으며, 올 가을에 사역지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저는 키가 185센티미터이며, 몇 주 후가 되면 25세가 됩니다. 언어 학습과 관련해서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고어(古語)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과학을 더 좋아했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보다 독일어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파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급생인 여성은 누구랑 나갈지 정하기 전부터 선교사로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척 건강합니다.<sup>39)</sup>

알렌의 지원 편지가 도착하자 선교본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건을 처리하였다. 우선 1883년 3월 12일 열린 실행위원회에 알렌의 지원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2주 동안 공람된 후, 3월 26일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둥선교부의 선교사로 임명된 Bergen(Paul D. Bergen, 1860-1915)은 알렌의 임지가 5월 7일 산둥으로 정해지면서 같은 선교부에 근무하는 동역자로 정해졌다.<sup>40)</sup> 선교지가 정해진 후에는 로우리 대신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 1826-1908)가 알렌과 교신하는 담당 총무로 바뀌었으며, 알렌의 구체적인 임지는 산둥선교부의 지난푸[濟南府]로 정해졌다.<sup>41)</sup>

선교지가 정해지자 알렌은 1883년 5월 17일 신부 부모의 집에서 메신저와 결혼했는데, 친구 리 목사가 주례를 맡았다. 이후 알렌은 엘린우드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선교지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해 나갔다.<sup>42)</sup> 알렌이 가장 궁금해 하며 절실했던 것은

Presb. C'h, U.S.A.(Jan. 10th, 1883). PHS RG 31 37-6, #521.; A. B. Morey(Cincinnati), Letter to the Board Foreign Missions, Presb. Ch, U.S.A.(Jan. 13th, 1883). PHS RG 31 37-6, #521~2.; William N. Taylor(Sec'y Faculty), Certificate of H. N. Allen(Feb. 28th, 1883). PHS RG 31 37-6, #505.

39) Horace N. Allen(Cincinnati), Letter to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 U.S.A.(Mar. 1st, 1883). PHS RG 31 37-6, #500.

40) Minutes V.4~5, #210(Mar. 26th, 1883); Minutes V.4~5, #218~9(May 7th, 1883).

41) 알렌의 임지가 베이징 혹은 난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약품과 의료 기구였다. 알렌은 자신이 “의료 기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선교본부가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제공해주는지, 의료 기구는 지급해 주는지”를 물어 보았다. 당시 선교본부는 의료 선교사에게 약값으로 100달러, 의료 기구 구입에 100달러를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알렌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사임하겠다는 지난푸의 의료 선교사 헌터(Stephen A. Hunter)가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었다.<sup>43)</sup> 자칫 한 지부에 2명의 의료 선교사가 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아직 임지로 떠나지 않은 알렌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엘린우드는 6월 21일자로 편지를 보내 “헌터의 사임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알렌이) 어디에 있건 부임 첫 해에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언어의 습득이다”라며 알렌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sup>44)</sup> 그리고 임지가 추운 곳이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배편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에는 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루미스(Augustus W. Loomis, 1816-91)의 도움을 받도록 권했다.

엘린우드는 8월 베이징 및 산둥선교부로 편지를 보내 알렌과 버겐이 곧 중국으로 떠날 것인데, 자신이 이들에게 “일단 지부에 들러 주위 선교사들의 자문을 받되, 가을에 바로 임지로 들어갈지, 혹은 추운 겨울 동안 즈푸[芝罘]나 퉁저우에 머물면서 중국어를 배우다가 1884년 봄에 임지로 들어갈지 결정하도록 했다”고 알렸다.<sup>45)</sup> 하지만

42) Horace N. Allen(Cincinnati), Letter to John G. Lowrie (Mar. 1st, 1883). PHS RG 31 37-6, #501.; Horace N. Allen (Delaware, Ohio),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4th, 1883). PHS RG 31 36-14, #432.; Horace N. Allen(Delaware, Ohio),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15th, 1883). PHS RG 31 36-14, #457.

43) Stephen A. Hunt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Feb. 28th, 1883). PHS China V17-83, #15.

44) Frank F. Ellinwood, Letter to Horace N. Allen(Delaware, Ohio)(June 21th, 1883). PHS RG 31 44-13, #194~5.

45) Frank F. Ellinwood, Letter to Shantung and Peking Station(Aug. 14, 1883). PHS China V67-83, #45.

나중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헌터는 사임을 하지 않았고, 이것이 알렌의 한국행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엘린우드도 첫 해의 주요 임무가 ‘언어 습득’이라고 강조한 것도 알렌의 한국행을 직접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난징에 잔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 Ⅲ. 미국 북장로회의 중국 선교 상황

이제 미국 북장로회의 중국 선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선교부의 상황은 지난푸가 임지인 알렌이 어떻게 난징과 상하이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다.

#### 1. 중국 선교부의 확장

미국에서 중국 선교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1831년 설립된 서부해외선교회(Western Foreign Missionary Society)였으나, 1837년 10월 31일 설립된 해외선교본부(Board of Foreign Missions)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첫 선교사인 오르(Robert W. Orr)와 미첼(John A. Mitchell)이 1838년 4월 싱가포르에 도착했다.<sup>46)</sup> 이후 1845년 광둥(廣東)선교부가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산둥(山東) 및 베이징선교부(1862), 중국 북선교부(1863), 하이난[海南]선교부(1893), 후난[湖南]선교부(1899), 중국 중앙선교부(1906), 장난[江南]선교부(1906), 그리고 위난[郁南]선교부(1923) 등 1923년까지 8개의 선교부가 설립됨으로써 중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북장로회의 최대 선교지가 되었다. 한국에 1개, 일본에 3개의 선교부가 설립된 것에 비해 많은 수의 선교부가 설립된 것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46) Minutes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held at Baltimore, October 31st, 1837, 10.

## 2. 의료 선교사의 부족

중국의 여러 선교부 중에서 산둥 및 베이징선교부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한국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다. 알렌이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되던 1883-4년에는 5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즈푸[芝罘]에는 의사가 없었고, 알렌의 임지인 지난푸의 헨터가 사임 의사를 밝혔기에 이곳의 선교지부들은 후임 의사를 충원하는데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알렌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곳은 바로 상하이와 난징을 포함하는 Ningbo[寧波]선교부였다. 이 선교부에는 당시 중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상륙하는 상하이가 있으며, 알렌이 뜻하지 않게 이 선교부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알렌이 상하이에 도착하던 1883-4년 Ningbo선교부에는 5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알렌이 임시로 체류하던 난징 지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하이, Ningbo, 항저우 및 쑤저우 지부의 4곳에는 의사가 없어 산둥 및 베이징선교부보다 훨씬 열악한 최악의 상황이었다.<sup>47)</sup> 알렌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인 1882년 새로 파송된 여의사 나일스(Mary W. Niles)를 유치하려고 난징과 상하이, 광저우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지만 나일스는 결국 광저우지부로 내려갔다. 난징에 있던 스티버트(J. E. Stubbert)도 따뜻한 광저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Ningbo로 옮겼는데, 양쪽 눈을 수술 받은 후 주치의가 권유하는 바람에 알렌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귀국해 버렸다.<sup>48)</sup> 이와 같이 Ningbo선교부의 5개 지부 모두 의료 선교사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47) The Forty-Seventh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May, 1884, 94.

48) William S. Holt(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23rd, 1893). PHS China V17-83, #103.



## IV. 알렌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내한 과정<sup>49)</sup>

### 1. 태평양 횡단 여행

알렌은 9월 1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sup>50)</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여행은 알렌의 부인에게 너무나도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결국 알렌이 중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행을 지원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알렌은 미국 북장로회가 일본으로 파송한 첫 선교사인 의사 헵번(James C. Hepburn, 1815-1911)의 도움으로 요코하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엘드리지(Stuart Eldridge, 1843-1901)에게 진료를 요청했다. 병세가 좋지 않아 배에 머물고 있던 알렌 부인을 진찰한 엘드리지는 그녀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불치의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일본에 체류할 것을 권했다.<sup>51)</sup> 하지만 다행히도 알렌의 부인은 병세가 크게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고, 알렌 부부는 10월 6일 증기선인 ‘나고야 마루’를 타고 10월 11일 상하이에 도착했다.<sup>52)</sup>

### 2. 알렌의 난징 체류

중국에 도착한 알렌은 10월 18일 선교본부로 첫 편지를 보냈는데, 상하이가 아니라 난징에서였다.<sup>53)</sup> 상하이에 도착한 알렌이 버젠과

49) 알렌의 중국 도착과 내한 과정에 대한 개요는 다른 논문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곳에서는 자료를 대폭 보완하였다. 이선호·박형우(2012년 3월), 277-323.

50) Horace N. Allen(Delaware, Ohio),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24th, 1883). PHS RG 31 37-2, #50.; Horace N. Allen, Dr. Allen's Diary, No. 1(Aug. 20th, 1883), New York Public Library.

51) Paul D. Bergen(Shanghai)(Oct. 1883). PHS China V17-83, #136.

52) Dr. Allen's Diary, No. 1(Oct. 11th, 1883).

53) Horace N. Allen(Nanking), Letter to Frank F. Ellinwood(Oct. 18th, 1883). PHS China V17-83, #144.

함께 지난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홀트(William S. Holt, 1848-1931)의 충고대로 10월 14일 헨더슨(Edward Henderson)에게 아내의 진료를 부탁했다. 헨더슨은 알렌에게 지난으로 가지 말고 아내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따뜻한 상하이에서 겨울을 나도록 권했다. 알렌이 헨더슨의 권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곳에 있게 되건 첫 해에는 ‘언어 습득’이 주요 업무”라고 엘린우드가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있었다. 마침 의사가 필요했던 난징의 선교사들이 상하이에 체류 중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알렌에게 자신들 선교지부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알렌이 이왕이면 난징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알렌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10월 15일 출발해 17일 난징에 도착했다.<sup>54)</sup> 여기서 알렌의 치밀함이 보이는데, 그는 헨더슨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선교부로 보내는 첫 편지에 첨부하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선교본부가 승인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난징에 도착한 알렌은 즉시 약간의 진료와 함께, 후에 임지로 가게 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 3. 헌터의 한국행 지원

알렌이 선교사로 임명된 직후,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녹스(George W. Knox, 1853-1912)는 한문 성경뿐 아니라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93)와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이 저술한 책들을 소지하고 있던 이수정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 사실을 선교본부로 알렸다.<sup>55)</sup> 엘린우드는 이것이 아직 문을 열고 있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소명” 인지를 숙고한 후,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5월 21일 일본의 녹스와 중국 산둥의 네비우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선교 개시에 관해 현지 선교사들의 중지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sup>56)</sup> 일본에서는 일본인 2명

54) Dr. Allen's Diary, No. 1(Oct. 15th, 1883).

55) Rijutei the Corean. 「Foreign Missionary」17(9)(1883), 148.

이 한국을 답사했으나 여러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본을 통한 한국 선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아직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지만, 엘린우드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것이 알렌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

1883년 12월 14일 열린 산둥 및 베이징선교부의 정례 회의에서 한국의 선교사 파송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알렌의 전임자 헨터와 리드(Gilbert Reid, 1857-1927)가 한국행을 지원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동료들은 “산둥지방에서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국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믿었고,<sup>57)</sup> 헨터와 리드가 한국으로 간 후 선교본부에서 다른 선교사들을 충원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 선교사가 꼭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선교사들은 헨터의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만일 후임 의사를 파송한다면 그의 한국행에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선교본부가 헨터의 요청을 수락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엔 머티어에게 알렌과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도록 조치했다. 머티어는 아직 난징에 머물고 있는 알렌에게 부인이 건강을 되찾는 즉시 임지로 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의 임지인 지난은 이 지역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헨터가 한국으로 떠나게 되면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됨을 강조하였다. 머티어는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에서 비록 다른 선교사들이 헨터의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선교본부가 인원을 충원해 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난징에 머물고 있는 알렌의 현 상태가 그대로 굳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원래 알렌의 임지인 지난이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알렌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다”며, 선교본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sup>58)</sup>

56)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L. Nevius(May 21st, 1883). PHS China V67-83, #23.; Frank F. Ellinwood, Letter to George W. Knox(May 21st, 1883). PHS China V67-83, #24.

57) W. M. Hayes,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22nd, 1883). PHS China V17-83, #177.

58) Calvin W. Mate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4th, 1883). PHS

다른 선교사들의 비협조로 자신들의 한국 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헌터와 리드는 그날 함께 기도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던 중에 둘 모두 “한국에 대한 선교 개시가 더욱 큰 부름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교부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12월 15일 둘은 선교본부에 자신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sup>59)</sup>

해외선교본부의 실행위원회는 1884년 2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으로의 파송을 요청하는” 리드와 헌터에 대해 “그들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sup>60)</sup> 엘린우드도 밝힌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헌터와 리드는 자신들의 중국어 지식을 희생시키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글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들 자리에 임명될) 신임 선교사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61)</sup> 한편 “알렌에 대한 우선권이 산둥지부에 있다”는 공식적인 지시를 내려 달라는 머티어의 편지에 대해 “아내의 건강 문제로 난징에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선교본부가 허락했지만, 알렌 자신이나 선교본부는 이것을 최종 결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보냈다.<sup>62)</sup>

#### 4. 알렌의 상하이 체류

이와 같이 1883년 12월 헌터와 리드의 한국행 및 알렌의 난징 체류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알렌은, 난징에서 머물고 있던 애비(Robert E. Abbey)의 불친절함에 마음이 상해

China V17-83, #170.

59) Stephen A. Hunt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5th, 1883). PHS China V17-83, #173.; Gilbert Reid,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5th, 1883). PHS China V17-83, #174.

60) Minutes V. 4~5, #283(Feb. 25th, 1884).

61) Frank F. Ellinwood, Letter to Stephen A. Hunter(Chinanfoo), (Feb. 16th, 1884). PHS China V67-84, #72a.

62) Frank F. Ellinwood, Letter to Calvin W. Mateer(Feb. 16th, 1884). PHS China, V67-84, #76.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1884년 1월 7일 상하이 남문 근처의 스미스(J. N. B. Smith) 집으로 옮겼다.<sup>63)</sup> 알렌은 자신을 걱정해 주는 주위 선교사들의 권고대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면 4월경에 원래의 임지인 지난푸로 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sup>64)</sup> 그러나 알렌은 4월에 임지로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푸의 헌터는 선교사 직을 사임하지 않고 한국행을 지원한 후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알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다.

당시 알렌은 상하이의 저명한 의사들인 헨더슨, 맥클리오드(Neil Macleod), 리틀(L. S. Little), 제이미슨(R. Alex Jamieson) 그리고 미국 감리회의 의료 선교사 분(H. W. Boone)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헨더슨은 한국의 해관 총세무사 뮐렌도르프(Paul Gerog von Mollendorf, 1848-1901)와 인천 세무사 스트리플링(A. B. Stripling, 1838-1904)을 잘 알고 있었고, 알렌에게 그들에게 보내는 매우 간곡한 추천서를 주면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 서울로 가서 ‘그 나라와 함께 성장하라’고 권유했다. 알렌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심하다가 6월 6일 한국 세관의 하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에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지를 문의했다.

## 5. 한국행 지원과 허락

이와 같이 한국에 외국인 의사가 확실히 필요하고, 헨더슨의 훌륭한 추천서를 갖고 있었기에 알렌은 자신이 한국에서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미국 공사관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6월 9일자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다. 알렌은 이 편지에서 “헌터와 리드의 한국행이 거부된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한국의 선교사로 가겠으니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65)</sup> 알렌은 “선교 본부가 자기의 계획을 허락하지

63) Dr. Allen's Diary, No. 1(Oct. 15th, 1883).

64) Horace N. Allen,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9th, 1884). PHS China V18-84, #118.

않으면 중국에서 예정되었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sup>66)</sup> 그리고 자신의 한국행을 허락하면 상하이의 홀트에게 전보를 쳐달라고 요청했다.

편지를 보낸 지 1달 정도가 지난 7월 20일경 미국의 군함 트렌튼(Trenton) 호가 상하이에 입항하였다. 이 배는 민영익 보병사 일행이 뉴욕에서 출발하여 유럽을 거쳐 제물포로 돌아올 때 타고 왔던 배였다. 그래서 알렌은 함장 피티안(Robert L. Phythian, 1835-1917) 및 승무원들을 만나 한국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고, 피티안은 주한 미국 공사푸트 앞으로 추천장을 써 주었다.<sup>67)</sup> 하지만 알렌은 서울의 미국 공사관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포기하게 된 알렌은 엘린우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며칠 후 엘린우드로부터 그의 한국행을 수락하는 전보가 도착했다.<sup>68)</sup> 이에 알렌은 1884년 7월 22일자로 엘린우드가 “한국에 선교부를 개설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얼마 전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기에 몇 주 정도 상하이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알렌의 한국행은 담당 총무 엘린우드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엘린우드의 결정은 9월 8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고, 알렌은 한국 선교부로 이적되었다. 바로 ‘1884년 9월 8일’이 ‘한국 선교부가 탄생한 날’이며, 엘린우드는 이러한 결정을 즉시 알렌에게 알렸다.<sup>69)</sup>

65) Horace N. Allen,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9th, 1884). PHS V1-84, #4.

66) 한국 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알렌이 보낸 글에서 “만일 한국행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직을 하고 어딘가로 떠나 버렸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1884년 당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Horace N. Allen, “Greeting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Annual Meeting at Pyeng Yang, Aug., 1909*, 3.

67) H. N. Allen, “Greetings,” 3.

68) 전보의 내용은 “Holt: Shanghai. Corea”이었다. 여기서 ‘Holt’는 알렌을 돕던 ‘William S. Holt’를 지칭하므로 “홀트 씨: 상하이, 조선”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Holt’를 ‘Halt(정지)’로 잘못 해독해서 “상해 정지, 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 Horace N. Allen(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22nd, 1884). PHS V1-84, #5.

알렌은 부산을 거쳐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상하이에서 동행한 중국인 언어 교사와 함께 당나귀를 타고 9월 22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 23일 개설 이후 의사가 없었던 미국 공사관의 무급 의사로 임명되었다. 아마도 알렌이 내한할 것이라고 알린 엘린우드의 편지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일 엘린우드에게 한국에서의 첫 편지를 보낸 알렌은 10월 11일 제물포를 떠나 17일 상하이에 도착했고, 이삿짐을 꾸려 20일 가족과 함께 다시 상하이를 떠나 10월 26일 제물포에 도착했다.<sup>70)</sup> 알렌의 가족이 서울에 정착하자 엘린우드는 그의 임지였던 산둥지부에 “우리가 한국 땅에 첫 정주 선교사를 갖게 됐다”며 첫 선교사가 탄생하였음을 알렸다.<sup>71)</sup>

## V. 맺음말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알렌이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알렌은 미국 독립에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등 독립심이 강했다.

둘째, 1870년 경 다니기 시작한 델라웨어 (제일) 장로교회에서는 대리 목사 머티어가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었고, 1878년 부임한 혼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 알렌을 포함한 다수의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섰다.

셋째, 알렌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스타링 의과대학에 이어 마이애

69) Minutes V.4~5, #211(Mar. 26th, 1883); Frank F. Ellinwood, Letter to Horace N. Allen(Sept. 8th, 1884). PHS China V68-84, #7.

70) Horace N. Allen, Letter to Frank F. Ellinwood(Oct. 1st, 1884). PHS V1-84, #6.

71) Frank F. Ellinwood, Letter to Shantung and Peking Station(Nov. 20th, 1884). PHS China V68-84, #20.

미 의과대학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고 1883년 3월 의사가 되었는데, 스승이자 선배인 맥도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와 같이 의료 선교사 준비를 하던 알렌이 북장로회로 처음 알려진 것은 1882년 5월 18일 혼 목사에 의해서였다. 알렌이 9월 26일 첫 편지를 보낸 이후 1883년 1월부터 여러 추천서가 선교본부로 보내졌고, 알렌의 선교 지원서는 3월 1일 보내졌다. 그는 3월 26일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이어 산둥선교부의 지난푸가 임지로 정해졌다. 선교사로 임명된 직후인 1883년 5월 17일 알렌은 메신저와 결혼함으로써 파송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알렌이 중국의 임지에 가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 북장로회의 중국 선교부는 만성적으로 의료 선교사의 부족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둘째, 알렌의 임지인 지난푸의 의료 선교사 헌터가 사임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한 선교지부에 2명의 의료 선교사가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셋째, 1883년 12월 14일 열린 산둥-베이징선교부의 회의에서 헌터와 리드가 한국행을 지원했지만, 다른 선교부가 이에 찬성하지 않았고 선교본부의 실행이사회도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헌터와 리드는 자신들의 중국어 지식을 희생시키고 다시 한글을 배워야 하고, 신임 선교사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넷째, 알렌의 한국행을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엘린우드에게 첫 해의 주요 임무는 ‘언어 습득’이기에 어느 곳에 있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1884년 1월 7일 상하이 남문 근처의 스미스 집으로 옮긴 알렌은 상하이의 의사들과 친분이 깊었는데, 특히 헨더슨 의사는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 서울로 가서 ‘그 나라와 함께 성장하라’고 권유했다.

여섯째, 조심성 있는 알렌은 6월 6일 한국 세관의 하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에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지를 문의했고, 6월 9일자로 선교본부에 한국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에 자리



가 없음을 알게 되어 한국행을 포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직후 선교본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전보가 도착하였다. 이러한 엘린우드의 결정은 9월 8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어 ‘한국 선교부’가 탄생하였다.

일곱째, 알렌은 ‘9월 6일 토요일’ 상하이를 떠났으며, 이후의 일정은 알렌이 일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부산을 거쳐 9월 20일 제물포에, 9월 22일 서울에 도착했다. 알렌이 상하이의 가족을 데리고 10월 26일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정착하자, 엘린우드는 그의 임지였던 산둥지부에 “우리가 한국 땅에 첫 정주 선교사를 갖게 됐다”며 첫 선교사가 탄생하였음을 알렸다.

한국의 첫 정주 선교사였던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그의 내한 13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이선호·박형우, “19세기말 미국 북 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제157집(2012년 3월)

Abram D. Hawn(Delaware, Ohio), Letter to John G. Lowrie(June 27th, 1882). PHS RG 31 36-12, #288~9.

Frank F. Ellinwood, Letter to Horace N. Allen(Delaware, Ohio) (June 21th, 1883). PHS RG 31 44-13, #194~5.

-----, Letter to Horace N. Allen(Sept. 8th, 1884). PHS China V68-84, #7.

-----, Letter to Shantung and Peking Station(Aug. 14, 1883). PHS China V67-83, #45.

-----, Letter to Shantung and Peking Station(Nov. 20th, 1884). PHS China V68-84, #20.

Horace N. Allen, “Greeting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Annual Meeting at Pyeng Yang, Aug., 1909*, 3.

Horace N. Allen,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9th, 1884). PHS V1-84,

#4.

-----, Letter to Joseph Haas(June 6th, 1884). New York Public Library, Box 2, Outgoing 1884~5, #3.

Horace N. Allen(Delaware, Ohio),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24th, 1883). PHS RG 31 37-2, #50.

-----,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4th, 1883). PHS RG 31 36-14, #432.

Horace N. Allen(Nanking), Letter to Frank F. Ellinwood(Oct. 18th, 1883). PHS China V17-83, #144.

Horace N. Allen(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22nd, 1884). PHS V1-84, #5.

Stephen A. Hunt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5th, 1883). PHS China V17-83, #173.

Stephen A. Hunt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Feb. 28th, 1883). PHS China V17-83, #15.

Personal Record of Horace Newton Allen(May 16, 1928). PHS RG 360.

The College Transcript, 1878~83.

W. Roy Diem, 『The Presbyterian Church of Delaware, Ohio 1819~1960』 (Delaware, Ohio: Independent Print Shop, 1960), 7~9.

투고·접수일 : 2013.12.23 심사 완료일 : 2014.2.7 게재 확정일 : 2014.2.10

**한글초록**

이 논문은 한국 최초의 정주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내한한지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2014년을 맞이하여, 알렌의 내한과 관련해 그 동안 거의 알려지지 있지 않았던 일차 사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알렌이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알렌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성이 강한 성향을 가졌다. 둘째, 알렌이 다니던 텔라웨어 장로교회는 해외 선교의 전통이 강했으며, 알렌은 특히 혼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셋째, 알렌이 다녔던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의 영향이다. 넷째, 알렌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스승이자 선배이며, 당대 최선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맥도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섯째, 알렌은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는 메신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다음으로 알렌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883년 9월 1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알렌은 부인의 심한 배 멀미로 요코하마를 거쳐 10월 11일 상해 도착한 후, 임지인 지난푸로 가지 못하고 난징 및 상하이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푸의 헌터가 사임을 번복함으로써 선교지부에 2명의 의료 선교사가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욱이 헌터는 1883년 12월 14일 열린 산둥-베이징선교부의 회의에서 한국행을 지원했지만 다른 선교사들과 선교본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임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1884년 1월 7일 상하이로 옮긴 알렌은 자신의 장애에 관해 고민하는 가운데, 친밀하게 지내던 핸더슨 의사가 그에게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 서울로 갈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리하여 알렌은 6월 6일 한국 세관의 하스에게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지를 문의했고, 6월 9일자로 선교본부에 한국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의 미국 공사관에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렌은 한국행을 포기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며칠 후 선교본부로부터 그의 한국행을 허락하는 전보가 도착했다.

알렌의 한국행은 엘런우드가 결정한 것이었으나, 9월 8일 열린 선교본부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인준함으로써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부’가 탄생하였다.

주제어: 한국 개신교 도입, 호러스 엔 알렌, 프랜시스 메신저, 프랭크 에프 엘런우드, 스티븐 에이 헌터, 에이브럼 디 혼,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

## Abstract

### The Backgrounds of Horace N. Allen's Application for Medical Missionary to China and Transfer to Korea

Park Hyung-Woo

On the occasion of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Korea 130 years ag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 S. A. by analysing the primary materials regarding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Dr. Horace N. Allen, which were not cited by other researchers before.

The backgrounds for applying himself as a medical missionary by Dr. Allen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Dr. Allen, as a descent American patriot, had a very independent characters. Second, the Delaware Presbyterian Church had a proud tradition on the foreign missions, and Dr. Allen was influenced, especially by Rev. Abram D. Hawn. Third, h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atmosphere of the Ohio Wesleyan University. Fourth, he was influenced by Dr. John McDowell, who had up-to-date knowledges on medicine during his medical courses. Fifth, Dr. Allen married to Frances Messenger who was calm and assisted her husband.

Next, the backgrounds for transferring Dr. Allen from China to Korea were as the followings. Dr. Allen sailed from San Francisco on Sept. 1st, 1883, but due to a severe sea-sick of Mrs. Allen, he had forced to stay in Nanzing and Shanghai rather than continuing their trip to original destination Chinanfoo. After his arrival in China Dr. Stephen A. Hunter of Chinanfoo changed his intention to resign, and this created an awkward situation for two doctors, especially Dr. Allen, since originally only one doctor was allowed per mission station. Even more, Dr. Hunter worked harder than before after not getting permission to go to Korea, especially from other missionaries of the Station and Executive Meeting of Board of Foreign Missions(BFM), which he asked at the meeting of Shuntung-Beijing Station on Dec. 14th, 1883.

Dr. Allen relocated to Shanghai on Jan. 7th, 1884, and was deeply worried about his future in China as a medical missionary. Dr. Edward Henderson suggested him to go to Korea and grow with the country. Dr. Allen sent a letter on June 6th to Joseph Haas, an officer of Korean Customs, to ask about the necessity of foreign doctors in Korea. Finally Dr. Allen sent a letter on June 9th to the BFM for getting permission to visit Korea. But there was no position for Dr. Allen in the American Legation in Seoul, then he sent a letter again to the Board to declare his abandonment to go to Korea. But, Dr. Allen surprisingly received the cablegram from the BFM allowing his visit to Korea.

Initial transfer of Dr. Allen to Korea was decided by the secretary, Frank F. Ellinwood, but the Executive Meeting of the BFM had approved the decision on Sept. 8th, 1884. By this decision,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established.

Key-words: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Korea, Horace N. Allen, Francis A. Messenger, Frank F. Ellinwood, Stephen A. Hunter, Abram D. Hawn,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